

[논문]

지역사회 여성단체 활동의 사회적 자본에 관한 연구

Formation of Social Capital through Women's Small Group Activities at Local Communities in Seoul

신 경 희* · 이 순 희**

목 차

- | | |
|----------------------------|------------------|
| I. 서론 | IV. 여성단체 조사결과 분석 |
| II. 사회적 자본에 관한 이론 연구 | V. 결론 |
| III. 여성단체 활동과 사회적 자본 측정 지표 | |

ABSTRACT

Kyunghee Shin · Soonhee Lee

This study aims to analyse effects of social capital by focusing women's small group activities at local communities in Seoul. For this purpose, this study reviews previous theoretical studies and reports, and surveys members of women's groups.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members of women's groups are largely full time housewives of middle-class with a high educational background. Second, group activities affect to develop human capital of members through diverse learning methods and consistent activities. Third, members evaluate positive group activities regarding their family relationship, and wish to attend family meetings of groups. Forth, most members wish to stay in their residence longer and become to have more attentions about their local government and local elections by attending group activities. Fifth, most members wish to associate with outside civic organizations, and participate volunteer activities. Sixth, lifelong learning programs of government or public events like volunteer festivals play important roles not only formation of women's group but also acceleration of group activities.

Community based women's group activities are in its birth stage in Seoul. This kind of group activities is public goods. Therefore public assistance and intermediary functions are crucial activating community based women's group activities

키워드(Key Words): 지역사회 여성단체 활동, 사회적 자본, 공공재,
community based women's group activities, social capital, public goods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도시사회연구부 연구위원

** 서울시 동부여성발전센터 교육훈련 담당

I. 서론

1. 연구 배경과 목적

1990년대 들어 시장의 세계화와 국가의 무기력에 대한 대처로 국가와 시장의 중간에 접점을 두는 시민사회 영역에 대한 관심이 전지구적 차원으로 확산되면서, 시민단체의 역할 또한 활발해지고 있는데, 우리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1990년대 중반에 접어들면서 미국의 정치사회학자 푸트남을 비롯한 학자나 정책결정자들이 시민단체활동을 국가나 한 지역의 사회경제발전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사회적 자본의 하나로 간주함에 따라, 자발적 결사체 형태인 여러 유형의 시민단체에 대한 관심과 연구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본 연구는 시민단체 활동을 사회적 자본으로 보는 관점을 견지하되, 여러 유형의 시민단체 중에서 주로 지역사회에 기반을 두고 활동하고 있는 여성들의 소규모 자발적 단체활동에 연구의 초점을 두었다¹⁾. 본 연구가 시민단체 중에서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소규모 여성단체에 특히 주목하는 이유로는 다음을 들 수 있다.

우선, 새로운 사회운동의 축으로 거주지 중심의

지역사회가 부상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우리의 경우 1990년대 들어 지방자치가 시작되면서 행정 정치적 면에서 기초자치단체의 역할이 커지고 있으며, 시민사회운동 면에서는 국가 차원의 민주화 운동이나 노동운동에 무게 중심을 둔 시민단체활동의 축이 지역사회에서의 환경, 교육, 소비 등의 지역생활운동으로 옮겨가는 경향이 있다(한국도시연구소, 1999). 대도시 서울의 경우 특히 거주지 중심의 지역사회가 갖는 사회적, 정치적 비중이 커짐에 따라, 지역사회와 여성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직장과 거주지가 분화된 대도시 서울에서 여성²⁾, 특히 주부는 대부분 임금노동자이자 자녀양육의 책임을 직접 지지 않는 남성과 달리 지역사회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전일제 주민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이는 여성이 지역사회와 맺는 관계의 내용이나 수준이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긴밀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³⁾.

1970년~1980년대에 일어난 서구의 새로운 사회운동-환경운동, 소비자운동, 평화운동, 시민주도운동-에 참여했던 가장 중요한 집단은 교육받은 중산계층이면서 노동시장에 직접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사람들로 시간활용에 다소 융통성 있는

1) 본 연구에서 말하는 지역사회 소규모 여성단체란 회원수가 100인 미만으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포함되지 않는 여성단체로서, 주로 자치구나 동 단위의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자원봉사, 지역사회운동, 문화·학습활동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여성단체를 말한다.

2) 서울의 경우 2001년 현재 15세 이상의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은 49.2%, 남성의 경우 74.8%이다. 여성 비경제활동인구의 68.9%는 가사·육아에 참여하며, 21.7%는 통학을 하고 있다. 반면 남성 비경제활동인구의 4.5%는 가사·육아에 참여하고, 50.2%는 통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여성의 취업률은 20대 57.1%에서 30대 48.9%로 떨어지다가, 40대 55.4%로 올라가고 있다. 그리고 여성은 학력수준이 높은 경우 남성에 비해 취업률이 상대적으로 낮고, 중졸 이하로 학력수준이 낮아지면 남성에 비해 취업률이 증가하는 구조를 보이고 있다(통계청, 2001).

3)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 2002년 7월에 만 20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서울시민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서울시민의 생활과 의식조사'에 의하면, 가장 가까운 친구에 대해 여성들은 34.2%가 동네, 이웃친구라고 응답한 반면, 남성은 18.8%가 동네, 이웃친구라고 응답하고 있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서울시 여성들의 인간 관계망이 남성에 비해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과 미국의 도시 연구에서도 여성의 인간 관계망은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역사회에 기반을 두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大谷信介, 1995, 144).

중산층 주부, 학생, 실업상태의 청소년, 은퇴한 사람이라고 한다(클라우스 오페, 1985, 95-96). 이런 점에서 본다면 교육수준은 높으나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못하고 있는 서울의 30~40대 주부들이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사회운동의 중추 세력이 될 수 있는 잠재적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학력수준이 높아진 서울의 30~40대 여성들은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과 육아 등의 문제로 경제활동 참여가 부진하지만, 기회가 된다면 경제활동이나 사회활동 참여에 적극적 의사를 갖고 있는 집단이기 때문이다. 1990년대 들어 활발해지기 시작한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지역주민운동단체에서 30~40대 주부의 참여비중이 높다고 한다(한국도시연구소, 1999, 322). 이는 자기 계발의 욕구나 사회적으로 의미있는 활동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고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정신적 여유를 가진 사람이 바로 30~40대의 주부이기 때문이다.

회원들간 대면적 상호작용이 가능한 소규모 지역 여성단체활동에 주목하는 두 번째 이유는, 여성들이 심리적, 거리적으로 대규모 시민단체(여성단체를 포함한)보다는 지역사회에 기반을 두고 활동하는 소규모 단체활동에 참여하기가 용이하다는 점이다. 여성들은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소규모 단체활동을 통해 시민사회 참여의 첫 번째 통로를 확보하고, 이를 토대로 활동영역을 확대 발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갖는다.

지역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시민단체활동에 대한 연구가 일천한 현 시점에서, 여성에 초점을 둔 연구는 상대적으로 관심을 덜 받기 때문에 지역사회와 관련된 여성단체활동에 관한 연구는 매우 빈약한 실정이다. 사회적으로 시민단체와 지역사회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으며, 지역사회

는 지역 여성단체활동을 통해, 여성은 지역사회에서의 시민단체활동을 통해 상호성장과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와 관련된 연구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는 수준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의 자치구나 동 단위 지역사회에 기반을 두고 활동하고 있는 여성단체 유형을 발굴하고, 이러한 단체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여성의 개인적 특성과 참여 계기, 활동의 내용, 그리고 단체활동이 여성 개인의 인적 자본과 가족과 지역사회의 사회적 자본 형성에 미친 영향, 행정과의 관계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일차적으로 이론연구를 위한 문헌연구를 하였고, 여성단체 발굴과 활동자 조사는 단계별로 다음과 같은 연구방법을 통해 이루어졌다.

1) 지역사회 여성단체 유형 분류

여성단체 발굴과 유형 분류를 위해 신문, 인터넷, 문헌조사, 법제도 등의 조사를 하였고, 이러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지역사회에 기반을 두고 활동하는 여성단체 유형을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었다. 첫 번째는 1990년대 들어 자치구 단위로 많이 들어선 문화원, 복지관, 도서관, 구민회관, 여성회관, 문화예술회관, 문화의 집, 주민자치센터 등의 공공문화복지시설에 기반을 두고 활동하는 여성단체가 있었다. 두 번째는 사단법인 등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해 민간단체 등록을 한 시민단체의 주도나 지원하에 독자적인 단체활동을 하는 여성단체가 있었다. 세 번째는 초기에 행

정주도로 단체가 결성되었으나 회원의 자발적 참여와 활동으로 운영되는 새마을 동부녀회와 자치구 주부환경연합과 같은 여성단체가 있었다.

2) 단체유형별 여성단체 발굴과 활동자 조사

유형별 여성단체 발굴과 활동자 설문조사를 위해 다음의 조사를 하였다. 공공문화복지시설의 경우 전자우편이나 팩스로 운영자 설문조사를 하였고, 80개 공공문화복지시설에서 222개 여성단체를 발굴하였다. 시민단체와 연계하여 활동하고 있는 여성단체를 발굴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에 등록된 시민단체 111개에 대한 운영자 전화조사를 하여, 시민단체와 연계를 가진 소규모 여성단체 47개를 발굴하였다.

단체활동자 설문조사를 위해 공공문화복지시설에서 발굴된 222개 여성단체 중에서 활동내용, 시설유형, 지역을 고려하여 18개 단체를 선정하였고, 시민단체조사에서 파악된 47개 단체에서 활동내용과 지역을 고려하여 11개 단체를 선정하였다. 새마을 동부녀회의 경우 서울시 새마을 부녀회지부로부터 단체활동이 활발하다고 추천을 받은 8개 중에서 지역을 고려해 5개 단체를 선정하였다. 주부환경연합은 강북과 강남지역에서 활동이 상대적으로 활발한 1개 단체를 각각 선택하였다.

단체활동자 설문조사 이전에 선정된 단체의 회장이나 총무, 또는 회원으로 활동하는 48명의 활동자를 대상으로 심층면담조사를 하였다. 심층면담조사 결과를 토대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작성하였고, 심층면담에 응했던 활동자들이 회원들에게 설문지를 배포하고 회수해주었다. 설문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에 자기기입식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총 407명의 여성단체 활동자가 설문조사에 응

답하였다.

II. 사회적 자본에 관한 이론 연구

1. 사회적 자본의 개념과 접근 관점

사회적 자본에 대한 개념 정의는 연구자의 연구목적과 접근시각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사람 사이의 협동과 신뢰, 규범, 연대, 상호호혜를 가능하게 하는 사회네트워크나 제도가 가진 가치로 규정될 수 있다. 사회적 자본 이론에서는 자본이란 용어를 사용한 것에서 알 수 있듯, 이러한 사회적 자본이 물질 자본이나 인적 자본과 마찬가지로 개인, 기업, 지역사회, 국가 등의 경제사회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생산요소로 작용한다고 보고 있다. 사회적 자본에 접근하는 이론적 관점은 부르디외의 집단 및 계급 재생산적 시각, 콜맨의 인적 자본과의 관계에서 보는 기능론적 시각, 푸트남의 시민적 목표에 부합되는 시민사회적 입장의 세 가지로 크게 유형화할 수 있는데, 이들 세 연구자를 중심으로 사회적 자본 개념과 이론을 살펴보기로 한다.

1) 집단 및 계급 재생산 관점에서 본 사회적 자본 이론

부르디외는 계급의 차이는 경제적 자본, 문화적 자본, 사회적 자본과 같은 여러 형태의 자본 총량으로부터 유래한다고 한다. 그는 사회적 자본이란 공통적 속성을 가진 영속적이고 유용한 관계로 묶여진 집단에 소속함으로써 얻게 되는 자원으로, 한 사람이 소유한 사회적 자본의 총량은 개인이 동원할 수 있는 네트워크의 범위와 그 네트워크에

연결된 각 사람의 경제, 문화, 상징자본의 총량이 라고 한다(부르디외, 1995, 11~13). 부르디외는 특정 집단이나 계급에 속한 개인이 그들에게 혜택을 주는 사회적 자본을 창출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사회성(sociability)을 형성하고 연대하는 것으로 보았다. 즉 사회네트워크는 자연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집단관계를 제도화하는 의도적인 투자전략에 의해 형성되며, 이를 통해 행위자는 집단에 의해 소유된 자원에 접근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사회적 자본은 궁극적으로 경제적 자본으로 환원될 수 있으나, 경제적 자본과 달리 의무나 계약이 구체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상반환시기의 불확실성, 상호호혜 기대의 위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시장교환이 아닌 것처럼 위장할 수 있다고 보았다(Portes, 1998). 계급재생산이란 갈등론적 시각에서 출발한 부르디외의 사회적 자본 이론을 통해 권력과 불평등의 문제를 설명할 수 있으나, 사회의 평등에 기여할 수 있는 사회적 자본의 기능을 경시하였다는 비판이 있다(Baron, 2001).

2) 인적자본과의 관계에서 본 사회적 자본 이론

콜맨은 사회적 자본을 행위자의 어떤 행위-그것이 개인이든 조직이든-를 촉진시키는 관계성으로 파악하여, 사회적 자본이란 그것이 가진 기능에 의해 개념이 정의되어야 한다고 한다. 콜맨은 사회적 자본을 하나의 실체로 보기보다는 두 가지 이상의 요소를 가진 다양한 실체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중 의무와 기대, 정보소통, 사회규범이 작동하는 세 가지 형태의 사회적 자본에 분석의 초점을 두고 있다. 부르디외가 사회적 자본을 배타적으로 사용되는 계급재(class goods)로 보았다면 콜맨은 사회적 자본의 공공재(public goods)적

속성에 주목하였다. 콜맨은 사회적 자본의 공공재적 속성으로 인해 사회적 자본의 창출과 유지는 규범과 제재, 권위, 여타 구조적 특성에 크게 의존하며, 따라서 접촉밀도가 높고 폐쇄된 네트워크 조건 하에서 사회적 자본이 창출될 가능성이 크다고 하였다. 콜맨은 인적 자본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자본 연구에 초점을 두어, 가족과 지역사회 내의 사회적 자본이 청소년의 인적 자본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Coleman, 1988).

3) 시민사회 발전과 관련된 사회적 자본 이론

푸트남은, 사회적 자본을 공유된 목표를 추구하는데 참가자들이 좀더 효과적으로 함께 행동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네트워크, 규범, 신뢰와 같은 사회조직의 특성으로 정의하고 있다. 푸트남은 사회적 자본의 영향은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 있지만, 그는 시민적 목표에 부합되는 사회적 자본에 관심을 가진다고 한다. 푸트남에 의하면 이웃간의 모임, 합창단, 협동조합, 운동클럽과 같이 밀도 높은 수평적 상호작용이 가능한 시민네트워크가 조밀할수록 시민들이 상호이익을 위해 협력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본다. 즉 다양한 사회적 영역을 가로지르는 시민네트워크는 보다 넓은 범위의 사회적 협력을 촉진시키고, 장기적인 사회교환 관계에 일관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여, 한 사회나 지역의 문화로 자리잡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시민단체활동을 사회적 자본의 본질적 형태라고 보고 있다(푸트남, 1994).

콜맨이 가족, 학교, 지역사회 내의 폐쇄적 네트워크나 의무적 관계에 연구초점을 두었다면, 푸트남은 오락이나 도덕, 사회적 목적을 위해 일어나는 자발적 상호작용을 통해 발생하는 신뢰와 사회

네트워크, 참여행태에 연구초점을 두고 있다. 푸트남의 사회적 자본 이론에 대해서는 지역사회와 국가의 자산인 사회적 자본은 원인이자 결과라는 순환논리를 극복할 수 없다는 동의어 반복이라는 방법론적 측면에서의 비판이 있다. 이러한 비판에 대해 푸트남은 시민적 참여의 규범과 네트워크는 경제적 번영에 기여하고, 또한 경제적 번영에 의해 강화되기도 한다고 하면서 문화와 구조의 논쟁은 닭과 달걀의 논쟁과 같이 생산적이지 못하다고 한다(푸트남, 1994, 301~302). 푸트남의 사회적 자본에 대한 다른 비판은 사회적 자본의 기능적, 긍정적 측면을 강조하여 성과 인종, 소득에 따른 사회적 자본의 불평등 문제와 갈등을 무시하였다는 것이다(Uslaner, 2001). 이러한 비판이 있으나 푸트남의 사회적 자본 이론은 도구적, 처방적이어서 사회적 자본을 정책적으로 타당한 개념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정치가나 정책결정자에게 주목을 받고 있다(Dekker, 2001).

Ⅲ. 여성단체 활동과 사회적 자본 측정 지표

본 논문에서는 사회적 자본을 행위자의 어떤 행위를 촉진시키는 관계성으로 보고 있는 콜맨의 이론, 그리고 사회적 자본을 공유된 목표를 추구하는데 참가자들이 더 효과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네트워크, 규범, 신뢰와 같은 사회조직으로 본 푸트남의 사회적 자본 이론을 조사연구의 분석틀로 삼고 있다. 푸트남의 사회적 자본 이론에 의하면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소규모 여성단체는 시민사회의 대표적인 사회적 자본의 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콜맨의 이론에 의하면 지역사회에 기반을 두고 활동하는 소규모 여성단

체는 사회적 자본 창출이 용이한 구조라고 할 수 있다.

여성단체에 대한 조사는 다음 세 가지 주제하에서 이루어졌다. 첫째, 여성단체활동이 여성의 인적자본과 사회적 자본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분석하였다. 둘째, 여성단체활동이 가족의 사회적 자본과 지역사회의 사회적 자본, 그리고 시민사회의 사회적 자본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분석하였다. 셋째, 사회적 자본의 공공재적 속성을 고려하고, 처방적인 정책적 함의를 찾기 위해 단체 결성과 참여의 계기 및 통로, 활동의 장애요인과 지원과 관련된 조사를 통해 여성단체활동과 행정간의 관계에 대한 제안을 하고 있다.

1. 여성단체활동과 여성의 인적 자본 및 사회적 자본 형성의 관계

가족이나 지역, 학교, 기업 내의 사회적 자본이 인적 자본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한편, 인적 자본 또한 사회적 자본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즉 사회적 자본과 인적 자본이 상호강화하는 관계에 있다는 연구들이 있다(OECD, 2000). 콜맨(1998)은 가족과 지역사회 내의 사회적 자본이 클수록 청소년의 학업성취도가 높다는, 즉 인적자본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한편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사회적 자본이 커진다고 하는데(Lin, 2001),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사회단체 참여율이 높아지고 있다. 통계청(1999)의 사회통계조사에 의하면 대졸 이상 학력자의 38.7%, 고졸자의 26.2%, 중졸자의 16.3%, 초졸 이하의 10.5%가 사회단체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자료

들은 인적 자본과 사회적 자본이 상호강화하는 관계에 있음을 보여준다.

19세기 중반부터 20세기 초반기에 있었던 미국 여성의 정치적 활동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여성들의 친밀한 문학클럽 등과 같은 비공식 자발적 결사체가 여성의 인적 자본을 발전시키는 역할을 하였다고 한다. 여성들은 문학클럽 등의 모임을 통해 그들의 의견을 공적으로 발표하고 보고서를 준비하는 훈련을 할 수 있었고, 조직활동에 필요한 기술을 익힐 수 있었다. 모임을 통해 이렇게 발전한 여성 인적 자본을 토대로 이후 여성들이 주도한 조직적 참정권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었다(Elizabeth, 2001).

본 연구에서는 여성들의 단체활동이 개인적 차원에서 여성의 인적 자본과 사회적 자본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인적 자본은 보통 학력수준으로 측정되나, 본 연구에서는 학력수준 외에도 다음과 같은 다양한 인적 자본 지표를 사용하였다. 첫째, 교육강좌나 세미나, 공연, 전시회 참여, 자격증 취득, 둘째, 정신적·신체적 건강도, 셋째, 활동 분야의 전문성과 지속성을 인적 자본 발전을 측정하는 조사항목으로 사용하였다.

푸트남은 경제자본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자본을 가진 사람은 더 많은 사회적 자본을 축적할 수 있으며, 사회적 자본도 사용하면 증가하고 사용하지 않으면 감소한다고 한다. 본 연구에서는 여성 단체활동이 여성의 사회적 자본 축적에 미치는 영향과 가능성을 인간관계의 폭에 대한 주관적 평가, 향후 단체활동의 여부와 여타 시민단체와의 연계, 단체활동 참여수를 조사지표로 하여 분석하였다.

2. 여성단체활동과 가족, 지역, 시민사회의 사회적 자본 형성과의 관계

여성의 연령대별 경제·사회활동 참여율은 20대에서 자녀양육기인 30대로 넘어가면서 낮아지고, 40대로 가면서 약간 높아지는 M자형을 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의 원인으로는 자녀양육에 필요한 사회적 지원의 부족, 그리고 가사와 가족의 정서적 지지, 자녀양육의 일차적 책임자는 여성이라는 즉 가정의 천사로서의 여성 역할을 강요하는 사회적 통념을 들 수 있다. 가족내 여성의 역할이 여성의 사회활동에 이처럼 영향을 준다면 여성의 단체활동 또한 가족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가족의 사회적 자본을 측정하는 지표는 청소년의 학업 성취도(인적 자본)와 관련된 사회적 자본을 연구할 때 주로 사용되고 있다. 가족의 사회적 자본을 측정하는 지표로는 ① 가족형태(양부모, 한부모, 확대가족, 가구내 성인 수로 측정하고, 한부모일 경우 아동의 가족내 사회적 자본은 줄어든다고 봄), ② 자녀의 수(자녀의 수가 많을수록 부모의 관심이 줄어든다는 전제 하에 형제가 많을수록 아동의 가족내 사회적 자본은 줄어든다고 봄), ③ 부모의 자녀에 대한 관심의 수준과 질(여가나 대화시간, 자녀의 활동이나 친구를 아는 수준, 학부모 모임 참여 등)이 지표로 사용된다(Lauglo, 2000).

본 연구에서는 여성의 단체활동이 가족의 사회적 자본에 미치는 영향을 회원들간 가족의 인지도, 가족간의 관계와 가족생활의 변화라는 조사항목을 통해 분석하였다.

지역사회의 사회적 자본을 측정하는 지표로는 거주안정(거주기간이 길수록 친구관계를 형성하

기 쉽다), 조그만 친절을 교환하는 이웃 수, 이웃에 대한 견해, 이웃과 거리에서 인사하는 비율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Forrest, 2001). 본 연구에서는 활동자의 거주기간과 향후 이동의향, 지역사회와 지역행정에 대한 관심도를 지표로 하여 여성의 단체활동이 지역사회의 사회적 자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푸트남은 미국 시민사회의 사회적 자본을 측정하기 위해 다음의 다섯 영역에서 총 14개의 지표를 사용하였는데, 이러한 지표는 국가간 사회적 자본 비교연구를 할 때 사용되기도 한다. 첫째, 공동체 조직 생활 측정지표로 ① 지난 일년간 지역사회 조직에서 위원으로 활동한 인구비율, ② 지난 일년간 조직이나 클럽의 임원으로 있는 인구비율, ③ 인구 1,000명당 사회단체 수, ④ 지난 일년간 클럽모임에 참가한 횟수, ⑤ 단체의 회원 수를 지표로 사용하고 있다. 둘째, 공적인 일의 참여 측정으로 ① 대통령 선거 참여율, ② 지난 일년간 마을이나 학교 일로 공적인 회의에 참여한 비율을 지표로 사용하고 있다. 셋째, 지역사회 자원활동으로 ① 인구 1,000명당 비영리 민간단체의 수, ② 지난 일년간 지역사회사업을 위해 일한 시간량, ③ 지난 일년간 자원봉사활동으로 일한 시간량을 지표로 사용하고 있다. 넷째, 비공식 사교(informal sociability)의 측정지표로 ① 나는 친구를 만나는 데 많은 시간을 쓴다에 동의하는 비율, ② 지난 일년간 집에서 파티를 한 횟수를 지표로 사용하고 있다. 다섯째 영역은 사회 신뢰의 측정으로 ①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을 수 있다에 동의하는 비율, ②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직하다에 동의하는 비율을 지표로 사용하고 있다(Putnam, 2000).

푸트남은 '내가 당신을 신뢰하는 이유는 내가 그녀를 신뢰하고 그녀가 당신을 신뢰하는 것을 보

증하므로 이러한 사회 네트워크가 신뢰의 사회적 이동을 가능하게 한다'고 했다. 즉 개인적 차원의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이 사회적 신뢰라는 시민사회적 차원으로 확산된다고 본다. 푸트남은 사회적 자본을 접착성 사회적 자본(bonding social capital)과 연결성 사회적 자본(bridge social capital)의 두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접착성 사회적 자본의 예로 가족이나 민족집단, 교회의 여성독서집단, 상류층의 교외클럽 등을 들고 있으며, 시민권리운동단체, 청년봉사단체, 세계종교단체 등은 연결성 사회적 자본으로 분류하고 있다(Putnam, 2000, 22~24). 연결성 사회적 자본이 시민사회의 사회적 자본을 확산시키는 데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회원들간 신뢰 수준, 사회문제와 공공시설에의 관심도, 여타 시민단체와의 연계, 자원봉사활동을 지표로 하여 지역의 여성단체 활동이 시민사회 차원의 사회적 자본으로 확대되는지를 조사분석하였다.

3. 여성단체활동과 행정과의 관계

자원봉사, 환경, 교육, 취미·문화·학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민들의 자발적 비영리 조직이 한 지역의 사회경제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자본이라고 보는 학자들 사이에서도, 이러한 사회적 자본 창출에 관련된 행정 역할에 대해서는 상반된 입장을 취하기도 한다. 후쿠야마의 경우 사회적 자본은 종교나 윤리적 습관 등에서 비롯되는 것이며, 복지국가의 지속적 확대와 국가의 정책적 개입이 사회적 자본을 감소, 붕괴시킨다고 본다(후쿠야마, 1996). 이에 반해 국가의 복지제정 비율이 높은 북유럽 국가에서 시민 자원봉사나 시민단체

활동 참여율이 높은 사실에서 볼 수 있듯, 복지국가와 시민사회 사회적 자본은 공생관계에 있다고 보는 입장이 있다(Woolcock, 1998).

콜맨과 푸트남은 사회적 자본은 공공재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사회적 자본 창출에 국가와 지방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1997년 뉴욕에서 열린 APCF(Asia-Pacific Cities Forum)에서는, 시 행정가들이 국내·외적으로 시민단체와 협동적 파트너십을 맺고, 지역사회에서 주민들과 함께 신뢰나 네트워크, 규범과 같은 사회적 자본을 증진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⁴⁾.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나 자치구, 공공시설에서 하고 있는 사업과 공무원들이 여성단체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여 여성단체활동과 행정과의 관계를 분석하고 있다.

IV. 여성단체 조사결과 분석

1. 조사방법과 조사대상

80개의 공공문화복지시설 조사를 통해 여성만으로 구성되었거나 여성회원이 90% 이상이 되는 여성단체 222개를 발굴하였다. 222개 여성단체의 대표적인 활동으로는 자원봉사 동아리가 32%로 가장 많았고, 춤동아리 14.4%, 독서 및 문학동아리 12.6%, 스포츠 동아리가 8.6%, 미술공예 동아리가 8.1%로 나타났다. 이 중 단체의 결성시기, 지역, 활동 유형을 고려하여 18개 단체를 임의로 선정하였다. 이중 5개 단체는 도배봉사, 제과제빵봉사, 요리급식봉사, 미용봉사, 복지시설 자원봉사

를 하는 단체이며, 13개 단체는 춤, 스포츠, 독서, 어학, 영화감상, 서예, 공예, 전통예절, 연극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동아리이다. 공공문화복지시설의 여성단체 설문조사에는 총 189명 활동자들이 응답을 해주었다.

시민단체와 연계하여 독자적 활동을 하고 있는 47개 여성단체 중에서 활동유형을 고려하여 11개 단체를 선발하였다. 텃밭가꾸기 모임, 민요모임, 여성학 모임 3개를 제외한 8개 단체는 환경이나 교육, 가족상담 등의 지역운동, 또는 사회운동을 하는 단체이다. 시민단체 내 여성단체 설문조사에는 102명의 활동자들이 응답을 해주었다. 동부녀회와 주부환경연합 7개 단체에서는 총 111명의 활동자들이 응답해주었다.

단체 활동자 설문조사를 하기 전에 총 48명의 회원들과 심층면담을 하였다. 그리고 활동자를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로 자기기입식 조사를 실시하여 총 407명의 응답설문지를 회수하였다.

2. 활동자의 인구 및 가구 특성

1) 연령

활동자의 현재 연령은 40대가 46%로 가장 많으며, 2·30대 28.4%, 50대 21.4%, 60대 4.2%의 순으로 나타났다. 단체유형별로 보면 공공문화복지시설에 기반을 둔 여성단체의 경우 40대가 58.7%로 가장 많으나, 시민단체 내 여성단체의 경우 2·30대가 60.8%로 가장 많다. 부녀회와 주부환경연합의 경우 50대가 43.2%로 가장 많아 단체유형에 따라 연령분포의 특성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4) 1997년 7월31일~8월 1일 New York에서 열린 Asia Pacific Cities Forum Roundtable의 백서인 The City Community Building Bridges to Sustainability 참고.

단체활동을 시작한 연령대를 보면 30대에 시작한 경우가 42.2%, 40대가 43.7%로 나타나, 자녀가 초등학교로 진학해 자녀양육기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는 30~40대에 활동을 시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부녀회·주부환경연합의 경우 현재 연령은 50대가 많으나, 활동시작연령은 30~40대가 많아, 활동자의 활동기간이 길다는 것을 알 수 있다(<표 1> 참조).

<표 1> 활동자 연령 및 활동시작 연령

단위 : %(명)

항목	공공 문화 복지 시설	시민 단체	부녀회· 주부환 경연합	전체	검 증 통계치
연령					
2, 30대	23.3	60.8	7.2	28.4(114)	$\chi^2=127.28^{***}$
40대	58.7	31.4	37.8	46.0(185)	
50대	15.9	7.8	43.2	21.4 (86)	
60대 이상	2.1	·	11.7	4.2 (17)	
합계	189	102	111	402	
활동시작 연령					
20대	1.7	7.0	1.8	3.1 (12)	$\chi^2=28.02^{***}$
30대	40.3	57.0	31.8	42.2(165)	
40대	47.5	31.0	49.1	43.7(171)	
50대	9.4	5.0	14.5	9.7 (38)	
60대	1.1	·	2.7	1.3 (5)	
합계	181	100	110	391	

*** $p < .001$

2) 학력

활동자의 학력은 전문대를 포함한 대졸 이상이 56.1%, 고등학교 졸업이 32.8%, 중졸 이하가 11%로 나타났다. 서울시 6세 이상 여성인구의 28.3%가 전문대 이상 학력수준(통계청, 2000)인 것과 비

교하면 여성단체 활동자의 학력수준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30대 활동자가 많아 연령층이 가장 젊은 시민단체 내 여성단체의 경우 82.1%가 전문대졸 이상이며, 40대 활동자가 많은 공공문화복지시설 여성단체의 경우 59.2%가 전문대졸 이상이며, 50대가 많은 부녀회·주부환경연합은 26.6%가 전문대졸 이상 학력자이다(<표 2> 참조).

<표 2> 활동자의 학력 수준

단위 : %(명)

학력수준	공공 문화 복지 시설	시민 단체	부녀회· 주부환 경연합	전체	검 증 통계치
중졸 이하	7.9	4.0	22.9	11.0 (44)	$\chi^2=87.60^{***}$
고 졸	32.8	13.9	50.5	32.8 (131)	
전문대졸	16.9	6.9	8.3	12.0 (48)	
대졸 이상	42.3	75.2	18.3	44.1 (176)	
합 계	189	101	109	399	

*** $p < .001$

3) 종교

활동자의 74.3%는 종교가 있으며, 25.7%는 종교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여성의 61.4%가 종교인인 것과 비교하면 여성단체 활동자의 종교인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종교별로 보면 활동자의 28.5%가 기독교인이며, 불교인 22.3%, 천주교인 21%로 나타났다. 서울시 여성의 천주교 비율이 10.6%인 것과 비교하면 천주교 여성들의 지역사회 여성단체 활동자 비율이 기독교나 불교를 믿는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다⁵⁾. 단체유

5) 서울시 여성의 종교분포를 보면 무교 38.6%, 기독교 27%, 불교 22.6%, 천주교 10.6%이다(통계청, 2000, 사회통계조사보고서). 전국의 환경시민단체 여성 활동자 조사에서도 천주교 여성의 비율이 18.9%로 나타나 타종교에 비해 천주교 여성의 참여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여성환경연대, 2000).

형별로는 연령층이 가장 젊은 시민단체 내 여성단체 활동자의 무종교인 비율이 39.2%로 가장 높으며, 40대가 많은 공공문화복지시설의 경우 기독교가 34.9%로 가장 많으며, 연령층이 가장 높은 부녀회·주부환경연합은 불교가 32.7%로 가장 많다(<표 3> 참조).

<표 3> 활동자의 종교 분포

단위 : %(명)

종 교	공공문화 복지시설	시민 단체	부녀회· 주부환 경연합	전체	검증통계치
무 교	19.3	39.2	24.5	25.7(104)	$\chi^2=25.80^{**}$
기독교	34.9	22.5	22.7	28.5(115)	
천주교	24.5	17.6	18.2	21.0 (85)	
불 교	18.2	18.6	32.7	22.3 (90)	
기 타	3.1	2.0	1.8	2.5 (10)	
합 계	192	102	110	404	

** p < .01

4) 혼인상태

활동자의 95.5%는 배우자가 있으며, 미혼은 2%에 불과하다. 이혼·별거는 0.5%, 사별은 2%로 나타났다. 서울시 여성의 12.5%가 이혼·사별인 것과 비교하면 여성단체 활동자의 혼인상태가 비교적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다(<표 4> 참조).

<표 4> 활동자의 혼인상태

단위 : %(명)

혼인상태	공공문화 복지시설	시민단체	부녀회· 주부환 경연합	전체
미 혼	1.0	4.9	0.9	2.0 (8)
기 혼	97.4	95.1	92.7	95.5 (386)
이혼·별거	0.5	·	0.9	0.5 (2)
사 별	1.0	·	5.5	2.0 (8)
합 계	192	102	110	404

5) 경제활동

활동자 중에서 현재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는 23.8%이며, 과거에 경제활동을 한 적이 있는 활동자는 48.6%, 경제활동을 전혀 해본 적이 없는 경우는 38.5%로 나타났다. 서울시 30대 여성의 취업률 48.9%, 40대 여성의 취업률 55.4%(통계청, 2001)와 비교하면 여성단체 활동자의 취업률이 낮음을 알 수 있다. 시민단체 내 여성단체 활동자의 취업률이 32%로 가장 높고, 공공문화복지시설 여성단체 활동자의 취업률이 25.7%, 부녀회·주부환경연합이 12.8%로 활동자의 취업률이 가장 낮다(<표 5> 참조).

<표 5> 활동자의 경제활동 경험

단위 : %(명)

항 목	공공문화 복지시설	시민 단체	부녀회· 주부환 경연합	전체	검증통계치
과거에 한 경험 있음	46.6	54.0	48.6	49.0(196)	$\chi^2=20.906^{***}$
경제활동 경험 없음	27.7	14.0	38.5	27.3(109)	
현재 경제활동 하고 있음	25.7	32.0	12.8	23.8 (95)	
합계	191	100	109	400	

*** p < .001

현재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활동자의 종사직종을 보면 교사와 강사가 30.7%, 사무직·영업직 25.3%, 자영업 16.5%, 아르바이트·일용노동직 16.5%, 전문직 5.5%, 시민단체 근무 4.4%로 나타났다. 교사와 강사직의 대부분은 아동 소그룹 독서 및 학습지도, 학원강사이며, 사무직·영업직은 보험설계사가 주류를 이루고 있어, 경제활동자라도 활동자의 대부분은 고용구조가 불안정한 임시

직, 시간제, 또는 자기 고용구조의 상태에 있음을 알 수 있다(<표 6> 참조).

<표 6> 경제활동자의 취업직종

항 목	빈도	%
교사 및 강사	28	30.7
사무직 및 영업직 직장인	23	25.3
자영업	15	16.5
아르바이트	8	8.8
일용노동직	7	7.7
전문직	5	5.5
시민단체	4	4.4
공무원	1	1.1
합 계	91	7100

6) 가구소득 및 주관적 계층평가

활동자의 한달 평균 가구소득은 31.1%가 301만원 이상이며, 201~300만원이 31.5%, 101~200만원이 30.7%로 나타났다. 주관적 계층평가는 상을 포함한 중상층 이상이 14.4%, 중중층이 55.6%로 가장 많으며, 중하층이 27.9%, 하층은 2%에 불과하다. 2002년 서울시민의식조사의 주관적 계층평가 결과를 보면 상을 포함한 중상층으로 평가한 시민은 6.7%, 중중층은 46%, 중하층은 39%, 하층은 8.3%로 나타났다(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2). 서울시민의 52.7%가 본인을 중중층으로 평가하는 것에 비해 여성단체 활동자의 경우 70%가 본인을 중중층으로 이상으로 평가하고 있어, 여성단체 활동자의 주관적 계층평가 수준이 높음을 알 수 있다(<표 7> 참조).

<표 7> 활동자의 가구소득 및 주관적 계층 평가
단위 : %(명)

항목	공공문화 복지시설	시민단체	부녀회· 주부환 경연합	전체
소득수준				
100만원 이하	6.0	8.2	6.6	6.7 (26)
101~200만원	27.3	30.6	36.8	30.7 (119)
201~300만원	30.6	32.7	32.1	31.5 (122)
301~400만원	19.1	17.3	13.2	17.1 (66)
401만원이상	16.9	11.2	11.3	14.0 (54)
합 계	183	98	106	387
주관적 계층평가				
상	.	.	2.8	0.7 (3)
중 상	15.3	8.8	15.6	13.7 (55)
중 중	57.4	51.0	56.9	55.6 (223)
중 하	25.3	38.2	22.9	27.9 (112)
하	2.1	2.0	1.8	2.0 (8)
합 계	190	102	109	401

3. 단체활동이 개인의 인적 자본과 사회적 자본에 미친 영향

1) 인적 자본에 미친 영향

단체활동이 여성의 인적 자본 발전에 미친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첫째, 단체활동을 계기로 참여하는 교육활동을 조사하였다. 두 번째는 단체활동이 활동자 본인에게 미친 정신적·신체적 영향을 5점 척도로 평가하도록 하였다. 세 번째는 단체활동이 활동의 전문성과 지속성, 사회활동능력 양성에 미친 영향을 5점 척도로 평가하도록 하였다.

활동자들의 40.3%가 단체활동을 하면서 활동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분야 강좌에 참여한 경험이 있으며, 관련 분야 세미나·공연·전시에 참가한 적이 있는 경우는 29.4%로 나타났다. 대학이나 대학원에 입학한 경우는 15.3%, 관련 분야

자격증 취득은 13.7%로 나타났다(<표 8> 참조).

활동자의 다음 이야기는 단체활동의 사회적 자본이 여성 개인의 인적 자본 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소모임으로 활동하다 보니깐 또 다른 욕구가 생기게 돼서 요즘 다시 공부(방송통신대학)를 시작했어요”

“회원 중에 NGO 석사과정에 입학하신 분들도 있어요 저 역시 깊이 있게 공부해봤으면 하는 욕구가 있구요”

<표 8> 활동 전문성을 위한 학습 방식(다중응답)

단위 : %(명)

항 목	공공 문화 복지 시설	시민 단체	부녀회· 주부회 경연합	전체
관련 분야 강좌에 참여 경험	37.8	42.7	42.6	40.3(214)
관련 분야 세미나에 참석 및 공연·전시관람	28.2	27.3	34.4	29.4(156)
대학이나 대학원, 평생교육원 등에 입학하여 관련 공부 경험	13.9	20.7	11.5	15.3 (81)
관련 분야 자격증을 취득	18.5	8.7	9.8	13.7 (73)
기타	1.5	0.7	1.6	1.3 (7)
합 계	259	150	122	531

<표 9> 활동자 학력수준별 평균 학습활동 수

항목	범주	N	평균	검증통계치
학력수준	중졸 이하	30	1.37	F=6.480***
	고졸	93	1.48	
	전문대졸	38	1.84	
	대졸 이상	144	1.92	

*** p < .001

활동자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참여하고 있는 학습활동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조사결과를 통해 인적 자본이 개인의 사회적 자본 형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이렇게 형성된 사회적 자본이 역으로 다시 개인의 인적 자본 발전

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활동자의 75.3%는 단체활동으로 세상을 넓게 볼 수 있었다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으며, 76.9%는 성장한 느낌이 든다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활동으로 인해 정신적·신체적으로 건강해졌다는 데 대해 75.3%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표 10> 참조).

활동자의 65.4%는 단체로 활동하기 때문에 전문성이 향상되고 활동 지속성이 있다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으며, 84.9%는 앞으로도 계속 활동하겠다는 의향을 갖고 있다. 현재의 단체활동이 본격적인 사회활동에 필요한 자질과 능력을 준비하는 과정이 될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활동자는 57.1%로 나타났다(<표 11> 참조).

<표 10> 단체활동이 정신적 성장과 건강에 미친 영향 평가

단위 : %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100점 환산)
개인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보다 넓게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됨	0.5	1.7	22.4	50.2	25.1	79.6점
나를 찾고 성장한 느낌이 들	0.2	1.0	21.9	53.5	23.4	79.8점
단체활동 후에 정신적· 신체적으로 건강해짐	0.5	2.0	22.2	52.4	22.9	79.0점

<표 11> 단체활동이 전문성과 사회활동 능력 양성에 미친 영향 평가

단위 : %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100점 환산)
단체로 활동하기 때문에 전문성이 향상되고 활동 지속성이 있음	0.5	4.5	29.7	47.4	18.0	75.6점
앞으로도 여건이 된다면 계속 활동을 해 나갈 것임	·	1.7	13.4	56.5	28.4	82.2점
본격적인 사회활동에 필요한 자질과 능력을 준비하는 과정이 됨	1.2	8.7	32.9	44.9	12.2	71.6점

2) 사회적 자본에 미친 영향

활동자의 80%는 단체활동으로 인간관계의 폭이 넓어졌다고 하며, 73.8%는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가더라도 그 곳에서 단체활동을 찾아서 하고 싶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2> 참조). 그리고 활동자의 56.9%는 분야가 비슷한 소집단과, 52.1%는 여성시민단체와, 45.5%는 외국의 여성단체와 연결해서 활동을 하고 싶다고 응답하고 있다(<표 20> 참조). 현재 참여하고 있는 단체활동 외에 다른 단체활동을 하고 있는 활동자는 85.7%, 다른 단체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활동자는 14.3%로 나타났는데, 다른 단체에 참여하고 있는 활동

<표 12> 단체활동이 사회네트워크 형성에 미친 영향 평가

단위 : %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100점 환산)
단체활동으로 인간관계의 폭이 넓어짐	·	2.2	17.7	54.6	25.4	80.6점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더라도 지역사회 단체 활동을 찾아서 하고 싶음	·	5.5	20.6	51.2	22.6	78.2점

<표 13> 다른 단체활동 참여 유무(다중응답)

단위 : %(명)

항 목	공공문화 복지시설	시민단체	부녀회·주부환경연합	전체
학부모회, 어머니회	21.7	27.2	19.5	22.5(163)
종교단체	21.7	14.1	15.9	18.0(131)
운동·취미 동호회	20.5	11.4	16.4	16.9(123)
공공기관의 자원봉사센터	15.5	10.3	17.3	14.7(107)
공공기관 및 시설의 운영위원회	9.6	17.9	16.8	13.9(101)
시민단체활동	4.0	16.3	7.3	8.1 (59)
부녀회	5.9	0.5	5.9	4.5 (33)
기타	0.9	2.2	0.9	1.2 (9)
합 계	100.0(322)	100.0(184)	100.0(220)	726
다른 단체활동 참여 안함	14.9	5.9	20.7	14.3 (58)

자의 단체 참여 평균 수는 약 2개로 나타났다(<표 13> 참조). 이러한 조사결과는 현재 단체활동이 여성 개인의 사회적 자본 축적에 영향을 미치고, 향후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즉 경제자본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자본을 가진 자는 사회적 자본을 축적한다는 푸트남의 이론에 부합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표 14> 다른 단체활동 평균 참여 수

항 목	N	평균	검증통계치
공공문화복지시설	165	1.95개	F=5.672**
시민단체	95	1.94개	
부녀회·주부환경연합	89	2.47개	

** p < .01

4. 단체활동이 가족과 지역사회, 시민사회의 사회적 자본에 미치는 영향

1) 가족의 사회적 자본에 미치는 영향

여성의 단체활동이 가족의 사회적 자본에 미친 영향을 보기 위해 회원들간 가족의 인지도, 가족관계와 가족생활의 변화에 대해 5점 척도로 평가하도록 하였다. 활동자의 35.1%는 회원들의 남편과 자녀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하고 있다. 61.1%는 회원 가족들간 모임이 주어진다면 가족들과 함께 참석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활동으로 가족관계가 좋아졌다는 활동자는 55.3%, 활동으로 자녀교육에 좋은 영향을 주었다는 응답자는 67.7%이다. 활동자의 43.3%는 가족들이 단체활동과 관련한 행사나 모임에 참여하는 편이라고 응답하고 있으며, 75.7%는 가족들과 단체활동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편이라고 한다. 그리고

〈표 15〉 단체활동이 가족관계에 미친 영향 평가

단위 : %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100점 환산)
회원들의 남편, 자녀에 대해 알게 됨	8.3	19.3	37.5	24.8	10.3	62.0점
회원 가족들간 모임이 주어진다면 가족들과 함께 참석할 의향이 있음	2.8	6.3	29.9	45.5	15.6	73.0점
활동으로 가족 관계가 좋아졌음	1.3	7.5	36.0	39.0	16.3	72.4점
활동으로 인해 자녀교육에 좋은 영향을 주었음	0.3	4.5	27.5	42.4	25.3	77.6점
가족들이 나의 활동과 관련한 행사나 모임에 참여하는 편임	7.8	20.8	28.3	31.8	11.5	63.8점
가족들과 활동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편임	1.7	5.0	17.7	49.3	26.4	78.8점
여러 가지 정보를 주고받기 때문에 자녀교육이나 가정생활에 도움이 됨	0.5	4.7	27.5	48.9	18.4	76.0점

67.3%의 활동자들이 단체활동을 통해 여러 가지 정보를 주고받기 때문에 자녀교육과 가정생활에 도움을 받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표 15〉 참조). 이러한 조사결과에서 여성의 단체활동이 가족간 그리고 가족내의 교류나 상호작용을 촉진시켜 가족의 사회적 자본을 창출하는 데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지역사회의 사회적 자본에 미치는 영향

여성단체활동이 지역사회의 사회적 자본에 미친 영향을 향후 거주이사, 지역사회와 지역행정 관심도에 대한 변화를 평가하도록 하여 분석하고 있다. 활동자의 62.3%는 단체활동으로 인해 가능한 이 동네에서 살려고 한다고 응답하고 있어, 단체활동이 거주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살고 있는 거주지의 평균거주연한을 보면 30대 연령층이 가장 많은 시민단체내 여성단체 활동자의 경

우 평균 9.2년, 40대가 가장 많은 문화복지시설 단체활동자의 경우 10년, 50대가 많은 부녀회·주부환경연합은 18.3년으로 나타났다(〈표 16〉 참조). 서울시 가구 중에서 한 집에서 5년 이상 살고 있는 가구가 37.3%이고, 동일한 자치구에서 5년 이상 살고 있는 가구가 35.1%⁶⁾인 것과 비교한다면, 지역사회 여성단체 활동자의 거주 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할 수 있다. 지역사회 사회적 자본을 측정하는 대표적 지표로 거주기간이 사용되고 있는데, 즉 주민들의 동일지역 내 거주기간이 길수록 지역사회의 사회적 자본이 큰 것으로 본다. 본 조사에 의하면 연령에 따라

〈표 16〉 단체유형별 평균 거주연한

항목	공공문화 복지시설 (N=184)	시민단체 (N=102)	부녀회 (N=108)	검증통계치
거주연한	10.03년	9.23년	18.34년	F=39.637***

*** p < .001

6) 통계청(2000), 인구주택총조사 2% 표본자료 이용.

〈표 17〉 단체활동 후 지역사회 관심도 영향 평가

단위 : %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100점 환산)
활동 후 지역사회에 관심을 갖게 됨	0.7	5.0	28.0	49.8	16.6	75.2점
활동으로 인해 가능한 이 동네에서 살려고 함	0.7	11.2	25.7	46.1	16.2	73.2점
활동 후 지역행정에 대한 관심 높아짐	0.5	8.0	30.6	44.8	16.2	73.6점
활동 후 시장을 비롯한 구청장·구의회 등 지방선거에 관심을 갖게 됨	1.5	14.2	32.3	37.8	14.2	69.8점

차이가 있으나 단체 활동자의 한 지역 평균거주기간이 약 10년 이상을 넘고 있다.

단체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는 활동자는 66.4%, 지역행정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는 활동자는 61%이며, 구청장과 구의회 선출 지방선거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는 활동자는 52%로 나타났다(<표 17> 참조). 2002년 서울시 여성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서울시 조사에 의하면 사회단체 참여 여성이 비참여 여성에 비해 시정에 참여 경험이나 참여의향이 높으며, 자원봉사참여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여성들이 단체활동을 통해 지역사회나 지역행정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여성의 단체활동이 지역사회의 사회적 자본을 창출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⁷⁾.

활동자의 다음 이야기는 이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사례이다.

“단체활동을 하고 나서 지역에 대한 관심이 많이 달라졌어요. 처음에 이 동네로 이사왔을 때는 슈퍼도 멀고 교통도 불편하다는 생각 밖에 안했었는데 지금은 제2의 고향 같아요. 지역 구석구석의 일도 알고, 주민자치센터 등 공공기관 과도 결합해서 활동하다보니깐 지역에 애정이 생기고 지역

을 위해 뭔가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단체활동을 하면서 지역의 공공시설을 이용하게 되니까 지역사회 활동에 관심이 커졌어요. 이전에는 나하고 상관없다고 여겨졌던 구 행정에 관심이 가죠”

“전에는 구가 어찌 돌아가는지 관심이 없었는데, 단체활동하면서 구청과 접촉하게 되니 구 행정에 관심이 가더군요. 자연히 구청장과 구 위원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게 되고, 지역문제도 제기하죠”

3) 시민사회의 사회적 자본에 미치는 영향

단체활동이 시민사회의 사회적 자본에 영향을 미치는지는 회원간 신뢰 수준, 사회문제와 공공시설·기관에의 관심도, 자원봉사 참여, 여타 시민단체와의 연계 정도로 살펴보았다. 활동자 49.3%는 회원들이 가족이나 친구처럼 친밀하다고 하며, 회원들간에 경조사를 챙긴다는 활동자는 40.1%, 회원들간에 신뢰와 믿음이 있다는 경우는 72.4%로 나타나, 단체활동으로 회원들간에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단체활동으로 사회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활동자는 80%, 단체활동으로 공공시설·기관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경우는 70%로 나타나, 여성의 단체활동이 사회의 식이나 공공문제에 관심을 가지는 데 긍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표 18> 참조).

7) 유재원(2000)의 연구에 의하면 이익단체, 사회운동단체, 친목단체, 봉사단체 등의 결사체 활동에 참여하는 시민이 비참여 시민보다 적극적으로 정치활동에 참여하며, 정치적 관심도가 높고, 정치에 대한 정보와 지식도 많이 보유하고 있으며, 시민적 의무감이 높고, 동료시민에 대한 신뢰와 관용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8〉 단체활동이 회원간 신뢰와 사회의식에 미치는 영향 평가

단위 : %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100점 환산)
회원들이 가족이나 친구처럼 친밀함	3.3	9.3	38.1	36.3	13.0	69.4점
회원들간에 경조사를 챙김	11.0	16.5	32.3	26.8	13.3	63.0점
회원들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있음	1.8	2.5	23.3	48.6	23.8	78.0점
활동 후에 사회문제에 관심을 갖게 됨	·	2.2	17.7	54.6	25.4	80.6점
활동 후에 공공시설·기관에 관심 갖게 됨	0.2	5.0	24.8	54.6	15.4	76.0점

활동자의 85.9%가 자원봉사활동을 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9> 참조). 서울시 여성 조사에서 57.8%가 자원봉사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한 것과 비교하면 단체활동자의 자원봉사 참여 의향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활동자의 다음 이야기는 자원봉사에 대한 이들의 의식을 잘 보여주고 있다.

“앞으로 장구와 판소리도 배울 계획이에요. 우리가 즐기면서 열심히 배워서 남들에게 많이 나눠주었으면 좋겠어요. 실력이 쌓여 기회가 닿으면 자원봉사활동도 가능하잖아요. 장구 하나만 있으면 반주가 되니까 동네양로원이나 복지시설에서 봉사할 수 있어요”

“내가 비싸게 배웠는데 처음에는 무료로 가르치는 일에만 나려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다 죽어서 이 기술을 갖고 가는 것도 아닌데 싶어, 봉사로 가르치고 싶은 생각이 들어 활동을 본격적으로 하고 있어요”

〈표 20〉 타 단체와의 교류 의향

단위 : %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100점 환산)
분야가 비슷한 다른 소집단에 대한 정보를 얻고 싶음	1.2	5.7	23.8	48.1	21.1	76.4점
분야가 비슷한 다른 소집단과 연결해서 활동하고 싶음	1.5	9.5	32.1	40.9	16.0	72.0점
여성·시민단체와 연결해서 활동하고 싶음	2.0	10.5	35.3	36.6	15.5	70.6점
외국의 여성단체와 연결해서 활동하고 싶음	3.0	16.8	34.7	32.4	13.1	67.2점

〈표 19〉 활동자의 자원봉사 참여 의향

단위 : %(명)

항 목	공공문화 복지시설	시민 단체	부녀회·주부환경연합	전체	검증통계치
전혀 그렇지 않다	0.5	·	2.7	1.0 (4)	$\chi^2=18.228^*$
그저 그렇다	5.7	2.0	3.6	4.2 (17)	
보통이다	10.9	2.9	10.8	8.9 (36)	
여건이 된다면 하고 싶다	70.5	71.6	69.4	70.4(286)	
매우 하고 싶다	12.4	23.5	13.5	15.5 (63)	
합 계	193	102	111	406	
평균 (100점 환산)	77.8	83.4	77.4	79.0	F=6.396**

* p < .05 ** p < .01

타시민단체와의 연계활동에서는 공공문화복지시설 여성단체의 경우 18개 단체 중 5개 단체가, 시민단체내 11개 여성단체 중에서 6개 단체가 여타 단체와 연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부녀회·주부환경연합의 경우 농촌과의 연계, 타동부녀회나 주부환경연합과 연계활동을 하고 있었다. 활동자의 69.2%는 분야가 비슷한 소집단에 대한 정보를 얻고 싶어하며, 56.9%는 분야가 비슷한 소집단과 연결해서 활동할 의향이 있다. 여성시민단체와 연결해서 활동하고 싶다는 활동자는 52.1%, 외국의 여성단체와 연결해서 활동하고 싶다는 활동자는 45.2%로 나타났다(<표 20> 참조). 현재 시민단체와의 연대활동이 크게 활발하지는

않으나, 향후 적절한 제도적 지원이 이루어지면 여성단체간의 연계활동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5. 행정이 단체활동에 미치는 영향

1) 단체 활동 참여 통로

여성단체 활동자가 단체에 참여하게 된 통로를 보면 38.1%가 공공문화복지시설의 강좌 수료를 계기로 참여하였고, 36.1%는 아는 사람의 권유로 참여하였다. 15.2%는 단체활동을 하고 싶어서 홍보물을 보고 직접 찾아갔다고 한다(<표 21> 참조). 1990년대 들어 자치구 단위로 늘어난 공공문화복지시설 강좌가 단체활동 참여통로로 기능하

<표 21> 단체활동 참여 통로

단위 : %(명)

참여 통로	공공문화복지시설	시민단체	부녀회·주부회·경연합	전체	검 증 통계치
공공문화복지시설 강좌 수료 후	56.7	19.8	21.5	38.1(153)	$\chi^2=155.78^{***}$
아는 사람의 권유로	18.0	41.6	63.6	36.1(145)	
직접 찾아감	16.5	22.8	5.6	15.2(61)	
시설학원 강좌 수료 후	7.7	·	0.9	4.0(16)	
공무원의 추천·권고	0.5	·	7.5	2.2(9)	
기타	0.5	15.8	0.9	4.5(18)	
합계	194	101	107	402	

*** p < .001

고 있음을 알 수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 사업이 여성의 단체활동 활성화에 일정 부분 기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 공공행사와 행정 의식

활동자의 59.3%는 서울시나 자치구의 각종 공공행사 개최가 여성단체 활동 활성화에 도움을 준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59.9%는 공공의 행사가 필요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활동자의 76.6%는 여성단체활동에 대한 사례소개 및 홍보가 필요하다고 하며, 공무원의 의식변화가 단체활동에 영향을 준다는 활동자는 77.6%로 나타났다(<표 22> 참조). 이러한 조사결과를 통해 행정의 정책이나 공무원의 태도가 여성의 지역사회 단체활동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여성단체 활성화를 위해 공공의 지원이 필요한 것을 알 수 있다.

활동자의 다음 이야기는 공공행사와 공무원의 태도가 여성의 단체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공모전에 단체 출전한다든지 전시회를 연다든지 하는 것이 활동 지속성과 전문성에 도움을 주죠. 하면 된다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우리 구의 자원봉사축제에 참가하였는데, 임상하지는 못했어도 회원들의 호응이 상당히 좋았어요”

<표 22> 단체활동에 공공행사 및 공무원이 미치는 영향

단위 : %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100점 환산)
서울시나 자치구의 공모전, 경연대회, 자원봉사축제 등의 공공행사가 소집단 활동을 활성화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생각함	0.7	11.2	28.7	46.4	13.0	72.0점
소집단 관련 축제 및 경연대회, 공모전 개최 등이 필요함	1.0	8.2	30.9	41.4	18.5	73.6점
여성소집단 사례 소개 및 홍보 필요	0.5	2.0	20.9	51.0	25.6	79.8점
공무원들의 의식변화가 필요	0.7	2.5	19.2	40.3	37.3	82.2점

“구청이라든지 동사무소에 저희는 이런 일을 합니다하고 전화드리면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세요. 좀 열려있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어차피 구청이나 동사무소도 지역을 위해서 활동하는 기관이니깐 주부들이 지역을 위해 활동하는 부분에도 조금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주셨으면 해요. 저희가 돈 받고 활동하는 것도 아니고 봉사차원에서 하는 건데 그런 부분에서 사기가 많이 꺾이기도 해요”

“행정적으로 지원해줄 것이 참 많고, 그게 활동에 큰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우리가 바자회 할 때에 행정에서 나와서 천막도 같이 설치해주고 하면 우리한테는 큰 힘이 되고 격려가 돼요. 관의 문턱이 높지 않다는 것이 보여져서 좋고 저희는 저희대로 우리가 이렇게 하면서 관하고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을 주민들한테 인식시켜 줄 수 있어서 좋구요”

V. 결론

본 연구는 자치구나 동 단위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소규모 여성단체를 다음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발굴하였다. 우선 공공문화복지시설에 기반을 두고 활동하는 자원봉사, 문화 및 학습 단체가 있었고, 그리고 시민단체 내에서 독자적인 소집단을 결성하여 활동하고 있는 여성단체, 마지막으로 행정 주도로 결성되었으나 자발적 참여로 활동하는 새마을 동부녀회와 주부환경연합이 있었다. 사회적 자본 이론을 연구조사의 분석틀로 하여 공공문화복지시설의 18개 여성단체, 시민단체 내 11개 여성단체, 새마을 동부녀회·주부환경연합 7개 여성단체의 활동자 심층면담조사, 활동자 407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첫째, 단체 유형별로 차이가 있으나 지역사회 여성단체에는 학력 수준이 높으나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중산층 기혼 여성으로 종교가 있는 여성들이 참여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970~1980년대 서구에서 일어난 새로운

사회운동에 참여한 중요한 집단의 하나로 교육받은 중산계층이면서, 노동시장에 직접적으로 규정되지 않아, 시간활용에 다소 융통성이 있는 중산층 주부가 참여한 사실과 부합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여성단체 활동자의 학력수준이 높다는 사실은 인적 자본이 사회적 자본 형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여성의 단체활동이 활동자 개인의 인적 자본 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단체활동이란 사회적 자본이 개인의 인적 자본 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여성단체 활동자의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현재 다양한 방식으로 학습에 참여하고 있어, 인적 자본과 사회적 자본이 상호강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여성의 단체활동으로 가족간 또는 가족내 상호작용이 증대하여 단체활동이 가족의 사회적 자본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활동자들이 회원 가족 모임에 향후 참여할 의향이 높아, 여성 단체활동이 가족의 사회적 자본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넷째, 여성의 단체활동이 활동자의 거주 안정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여도 지역사회 단체활동을 하겠다는 활동자가 많아 지역의 사회적 자본 창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단체활동으로 자치구 행정이나 지방선거에 관심을 갖게 되는 활동자가 많아, 여성단체활동이 지역사회 사회적 자본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섯째, 지역사회 여성의 단체활동은 시민사회 사회적 자본을 확산시키는 데 유리한 연결성 사회적 자본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단체활동 후

에 사회문제나 공공시설·기관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활동자가 많으며, 대다수의 활동자가 향후 자원봉사를 할 의향이 있으며, 과반수가 국내외의 시민단체와 연결해 활동을 하고 싶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사회 여성단체가 시민사회 사회적 자본 형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사업이나 공공행사 개최, 지원사업이 여성의 자발적 단체 결성과 단체참여, 활동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조사결과에서 지역사회 여성단체활동이 여성의 인적 자본과 가족 및 지역사회 사회적 자본, 그리고 시민사회 사회적 자본 창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2002년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조사에 의하면 만 20세 이상 65세 미만 서울시 여성의 시민사회단체 참여율은 매우 낮아, 문화·취미·스포츠 단체활동에 참여하는 여성은 6.8%이며, 사회봉사단체와 시민단체에 참여하는 여성은 3.2%, 여성시민단체에 참여하는 여성은 2.4%에 불과하다. 여성의 시민단체활동이 개인과 사회 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으나, 현재 이러한 시민단체 활동 참여자가 소수에 머물러 있어, 여성의 지역사회단체 활동을 통한 사회적 자본 형성은 아직 미미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 의하면 지역사회 여성단체의 결성과 참여에 공공의 평생학습프로그램이 가장 중요한 통로로 기능하고 있었으며, 공공의 행사나 지원, 그리고 공무원의 태도가 여성의 지역사회 단체활동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자본이 공공재적 속성을 갖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공공차원에서 지역사회의 여성단체 활동을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이 향후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과제의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부르디외, 삐에르, 최종철 역, 1995, 『구별짓기 : 문화와 취향의 사회학』, 새물결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2, 『서울시 사회계층과 정책수요』
- 여성환경연대, 2000, 『환경개선문제 및 환경정책 시행의 사회적 기반 마련을 위한 여성 잠재력 활성화 방안』
- 유재원, 2000, “사회자본과 자발적 결사체”, 『한국정책학회보』, 제9권 3호, pp. 23-43
- 클라우스 오페, 1985, “새로운 사회운동: 제도정치의 한계에 대한 도전”, 정수복(편역), 1993, 『새로운 사회운동과 참여민주주의』, 문학과 지성사
- 통계청, 1999, 『사회통계조사보고서』
- , 2000, 2001, 『경제활동인구연보』
- , 2000,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 푸트남, 로버트, 1994, 안청시 외 공역, 2000, 『사회적 자본과 민주주의』, 박영사, 서울
- 한국도시연구소, 1999, 『지역주민운동 리포트』, 후쿠야마, 프랜시스, 구승희 역, 1996, 『트러스트』, 한국경제신문사, 서울
- 大谷信介, 1995, 『現代都市住民のパーソナル・ネットワーク』, ミネルヴァ書房, 東京
- APCF, 1997, *The City Community Building Bridges to Sustainability, White Paper*
- Baron, S., et al, 2001, *Social Capital*, Oxford University Press, Oxford.
- Coleman, J. S., 1998, “Social Capital in the Creation of Human Capital”,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988, 94/supplement, s95-s120
- Dekker, P., Uslaner, Eric M., 2001, *Social Capital and Participation in Everyday Life*, Routledge, London
- Elisabeth S. Clement 2001, “Securing Political Returns to Social Capital : Women’s Associations in the U.S”, in Robert I. Rotberg(ed.), *Patterns of Social Capital*, Cambridge University Press

- Forrest, R., Kearns, A., 2001, "Social Cohesion, Social Capital and the Neighbourhood", *Urban Studies*, vol. 38, no. 12, pp. 2125-2143
- Lauglo, Jon., 2000, "Social Capital Trumping Class and Cultural Capital? Engagement with School among Immigrant Youth", in Baron, S.,(ed.), 2001, *Social Capital*, Oxford University Press, Oxford
- Lin, N., 2001, *Social Capital : A Theory of Social Structure and Ac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 OECD, 2001, *The Well-being of Nations-The Role of Human and Social Capital*
- Portes, A., 1998, "Social Capital : Its Origins and Applications in Modern Sociology", *Annual Review of Sociology*, vol. 24, pp. 1-24
- Putnam, Robert D., 1995, "Tuning In, Tuning Out : The Strange Disappearance of Social Capital in America", *Political Science & Politics*, December, pp. 664-683
- Putnam, Robert D., 2000, *Bowling Alone*, Simon & Schuster, New York
- Woolcock, M., 1998, "Social capital and economic development : Toward a theoretical synthesis and policy framework", *Theory and Society*, vol.27, pp. 151-208